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47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최저학력제X주중경기 금지X체육특기자" 체육인VS전 스포츠혁신위원들...**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02

**학교체육진흥포럼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 생태계 구축 필요"**

연합뉴스 이동철 기자

03

**‘○○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줄게’ 2000만원 받은 야구부 감독 폭로하고 벌어진 일**

한겨레21 장필수 기자

04

**'폐교→미래 학교체육의 메카'경기학생스포츠센터의 좋은 예, 개관 4년만에 '8809명' ...'**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05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23일 국회서 공청회 개최**

무예신문 최현석 기자





01

## 박준현 父 기빠 올때 '학폭' 피해가족 숨죽여 눈물..."선처 생각 바뀌어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2025-12-22 09:32

사진=스포츠조선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 7차 권고 그후 6년 만에 당시 스포츠혁신 위원들과 스포츠 현장의 첫 '맞짱' 토론이 성사됐다.

한국체육학회가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년 국제스포츠과학 심포 지엄에서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스포츠혁신위는 '고 최숙현 사건' 직후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총 7차에 걸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스포츠기본법 제정, 합숙소 전면 폐지, 정규수업 후 훈련 등의 정책이 이행됐고,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최저학력 미충족시 대회 참가금지 등은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가혹한 '규제' 정책이라는 비난 속에 학부모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한국체육학회가 활짝 열어둔 공론의 장에서 보기 드문 갑론을박 토론이 펼쳐졌다.

스포츠혁신위원 출신 정용철 서강대 교수(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가 '헤어질 결심: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고언', 모굴스키 국대 출신 스포츠혁신위원 서정화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우리나라 스포츠의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선수육성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현장 지도자를 대표해 강호석 스쿼시국가 대표감독(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장)이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 본 과제와 미래 방향'. 학부모를 대표해 최준혁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경기지부 대표가 '학부모가 말하는 선수 보호와 사회적 안정망'를 주제로 발제했다.





01

## 스포츠는 왜 영재 교육 하면 안되나요?

발제 직후 플로어는 뜨거웠다. 현장의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들의 앞다퉀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최저학력제, 주중대회 금지, 체육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 그간 억눌린 현장의 울분을 쏟아냈다.

'유도 레전드' 김재범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장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두 개를 다 잘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얻는다. 서정화 변호사님은 두 가지를 다 잘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잘했지만 서로 다른 길이지 누가 더 낫다 말할 수 없다. 올림픽에 3번 나가 금메달, 은메달을 땀지만 메달색이나 자리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라고 했다. "일단 아이들의 선택을 믿어줘야 한다. 참새나 독수리가 나뭇가지에 앉았을 때 나뭇가지가 안전한지 걱정하지 말고 날개가 튼튼한지 보고, 그 날개가 튼튼해지도록 돕는 것이 어른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스포츠 외 다른 분야에선 잘하는 애를 더 잘하게 교육하려 하면서 왜 유독 스포츠는 영재교육을 하면 안되는지를 질문했다. 정 교수는 "문화, 예술인은 체육 특기자 제도가 없다. 수업을 안 나가면 자퇴해야 한다 영재교육은 당연히 중요하고, 재능 있는 걸 열심히 하면 공교육 내에서 합당한 제도가 있는데, '안해도 된다고 허용해주는' 건 유효기간이 다 됐다"고 답했다. "초·중 레벨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 기본기를 다지기보다 하루종일 뛰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지도자 욕심이 맞물려 있다. 박지성이 무릎 부상으로 조기은퇴한 이유가 됐다"고 했다.

## 체육특기자 제도 어떻게 바뀌야 할까요?

논란의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강호석 감독은 "체육특기자 제도는 폐지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 대학 감독이 직접 리크루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학 럭비부를 뽑는다면 감독이 최저를 맞추게 해서 뽑으면 된다. 대학야구 감독은 내야수가 필요한데 시험성적 때매 투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학 스포츠가 발전할 수가 없다"면서 "특기자 제도는 대학 스포츠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계열 진학 조향도 풀려줘야 한다.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는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제한하는 제도다. '듀얼 커리어'가 가능하게 열어줘야 한다. 미국 사례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이런 건 안 따라하나?"라고 반문했다.



## 01

서정화 변호사는 "체육특기자 전형이 일반학생들이 운동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학생들이 운동도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확장, '체육만 잘하면 대학을 간다'가 아니라 '공부와 운동을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용철 교수는 대입제도에 교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가산점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강대가 입시전형에 스포츠 경력으로 '0.1점'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면 물밀듯이 학생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스포츠 문화를 바꿀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도 고3이 되면 입시 때문에 그만 두는 게 현실이다. 학교스포츠클럽 경력은 대입 기록에 적용이 안된다. 3년 내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한 것, 전국대회 4강 경력이 대입 생기부에 반영되고, 인정받는 방식, 입사할 때도 스포츠 커리어가 축적돼 사회를 뚫고 나가는 때 관문마다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문을 열어주는 게 되도록 하는 게 제 목표다. 서강대 안에서 가산점 0.1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체육인=비리·범죄집단'이라는 편견에 대해

체육인들을 비리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같은 문체부 소속인데 왜 우리 스포츠인들만 윤리센터가 필요한가. 연예, 예술, 문화인은 괜찮은가. 문화예술스포츠윤리센터가 돼야 한다. 또 스포츠선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격히 제재하면서 문화 예술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복귀한다. 왜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용철 교수는 "문화연대 집행위원으로도 활동중인데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 문화예술인들 중 '우리는 없다'며 비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창구가 있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체육계에 안좋은 일을 해결하는 국가기관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희태 남자유도 대표팀 감독은 "레슬링, 유도, 복싱 등은 똑같이 훈련해선 절대로 외국 선수를 못이긴다. 그런 소위 3D 종목들이 무너지고 있다. 국제대회 출전권을 못따고 있다. 이런 종목은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최저학력제, 인권교육과 관련한 편견을 신랄하게 짚었다. "일본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평균 60%를 넘지 않으면 유급된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왜 운동선수만 따로 한정하나. 잘못된 편견이다. 일본은 유급 위기의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불러놓고 교육시켜 유급 안당하게 도와준다.



## 01

나는 우리 선수 중 학교에서 남으라 해 공부시키는 선생님을 보지 못했다. 또 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하면 그 지도자 개인이 잘못된 건데 체육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다. 대학원생을 교수가 때렸다고 그걸 교육계 전체로 보진 않지 않나. 체육계를 향한 편견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스포츠 인권 교육은 들어본 적 있다. 국가대표 감독이기 때문에 지도자 교육 영상을 보는데 '이건 이래서 범죄다' '이렇게 하면 신고하라'고 나온다. 우리 지도자들이 범죄자인가"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인권은 존중이다. 스포츠도 존중이다. 지도자는 선수를 존중하고 선수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존중해라'를 가르쳐야지 '범죄다, 아니다', '이렇게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인가. 제발 그런 편견을 버려달라"고 말했다.

### 반인권적 최저학력제, 학생선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육상 레전드' 김국영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장은 "최저학력제, 주중 경기 금지와 관련해 현장에도 가봤다. 육상의 경우 8월 오후 2시 섭씨40도에 하는데 트랙 체감 온도는 200도에 육박한다. 시합을 할 수 없다. 추계 대회를 원하지만 중고학생은 학습권 보장 때문에 출전할 수 없다. 선수들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행인 게 아니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 교수는 "(스포츠혁신위에서)혹서기, 혹한기 안전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했고, 전체적으로 경기일수를 줄이는 방식을 목표로 했다. 절박한 시기에 명분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 부분에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복싱 세계챔피언' 출신 이옥성 국가대표 코치도 목소리를 냈다. "우리 학생선수들에게 국영수 성적에 따라 경기출전을 금지했으면 일반학생들도 국영수가 떨어지면 유급시키거나 졸업을 안시켜야 한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 학습권에는 국영수도 있고, 체육도 있고, 학교안 모든 것이 교육이다. 학생선수를 위한 맞춤형 교육, 독서나 영어교육 등 방안을 만들어놓고 정책을 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중대회 금지와 관련해 선수, 지도자도 사람이다. 쉬어야 한다. 주중 훈련하고, 주말 대회하고 가정 있는 지도자는 집에도 못간다. 선수도 언제 쉬나. 선수는 회복하면서 발달한다. 이런 부분도 정책을 던졌으면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정화 변호사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반감에 동의한다. '최저'가 맞다. 공부를 잘해야 일정 성적을 해야 대회 나갈 수 있고 생각할 지점은 충분히 있다.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과 일정성적이상을 해야 한다는 건 차이점이 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단 게 아니다.





01

국민 누구나 받는 기본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게 학습권이다. 최저학력제 기준이 수업 듣고 수행평가라도 하면 나오는 수준이다. 최소한의 참여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석 감독은 "세상엔 많은 아이들이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다. 30점을 못넘냐고 하는데 세상엔 그런 느린 학습자도 있다. 그 아이들에게 운동은 기회가 된다. 공부 못했다고 대회를 못나가게 하나, 공부 못하게 범죄냐, 아니지 않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천 함께하는 스포츠포럼 이사장은 "최저학력제는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 만들 때 현장과 논의 없이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학습권은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것이지 성적을 내라는 게 아니다. 최저학력제는 그걸 넘어서서 '공부 못하는 건 죄'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공부 못하면 대회를 못나간다. 공부를 못하면 잘하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법은 지원법으로 진화해야 한다. 해결을 위해선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오늘까지 최저학력제로 인해 우리 학생선수들의 학력이 증진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학생선수를 위한 정책을 하자"고 제언했다.

### 스포츠는 AI시대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진정한 교육,

손승리 IBK기업은행 주니어육성팀 감독은 정용철 교수를 향해 "스포츠는 그 자체로 대단한 교육이자 학습이다. 교수님은 스포츠를 교육이 아닌 별개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라며 인식과 편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정 교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했다. "스포츠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모두 교육의 일환이다. 나는 전공자이고 스포츠의 가치는 중요하다"면서 "(최저학력제, 주중대회 참가 제한 등과 관련)함께 마련된 장치들이 깨지고 작동하지 않았다. 스포츠 개혁을 위해 처우, 과학, 지원을 다 넣었는데 깨지다 보니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스포츠의 가치, 체육교육에 대한 믿음을 확고했다. "스포츠 교육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AI 시대, 결국 남는 것은 감각 교육, 예술, 문화, 스포츠, 신체활동 교육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영역이다. 스포츠 교육이 계속 남을 유일한 창구란 걸 인식하고 있다. 분명히 교육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영준 전남펜싱협회장은 "종목단체 회장 입장에서 최저학력제에 의해 선수 질이 떨어지고 운동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학부모님들의 반발도 심했다. 두분의 사고와 방향도 저희와 동일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 01

스포츠혁신위원들을 많이 미워했다. 오늘 막상 만나 말씀을 들어보니 방향이 같은 부분이 많다는 걸 확인했다. 앞으로 함께 좋은 방향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회장의 말대로 서로의 생각과 관점은 다를지언정, 스포츠를 향한 애정과 진심, 스포츠 가치에 대한 믿음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무려 10여 년 전 만들어진 법안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체육인들의 공감대, 1년새 쏟아낸 7건의 권고안이 의도와 달리 세심한 장치 없이 선언적으로 작동하면서 실행과정에서 현장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 현장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은 필패한다는 교훈, 지난 6년간 체육현장서 이어진 고뇌와 울분, 그럼에도 스포츠 활동을 대입 가산점에 반영하고, 스포츠가 AI시대 인류에 남을 유일한 교육이자 가야할 길이라는 동일한 시각을 확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재현 한체대 교수는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절박한 상황과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오늘은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서로의 입장을 들었다는 걸로 의미를 정리하면 될 것 같다"면서 "체육시민연대의 활동이 변화를 이끄는 모멘텀을 만드는 등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있다. 첫 세미나, 첫 토론회는 밤새도록 해도 부족할 것이다. 런 자리를 좀더 많이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학술 심포지엄, 맞짱 토론의 끝, 기념사진 촬영시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국체육, 파이팅!"을 외쳤다. 최관용 한국체육학회장은 "체육계 현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 내년 4월 마지막주 금요일 체육주간 기념 학술대회가 있다. 그때 또다시 체육계 현안을 주제를 선정해 토론회를 진행해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2025 학교체육진흥포럼

02

## 학교체육진흥포럼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 생태계 구축 필요"

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2025-12-18 15:45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주최한 2025 학교체육진흥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노스포츠(No Sports), 노퓨처(No Future),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의 길을 탐(探)하다'라는 주제로 학교체육진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승민 체육회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관용 한국체육학회 회장,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학교체육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승민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3월 취임 후 스포츠계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특히 학교체육 개혁에 가장 역점을 뒀다"면서 "미국과 일본을 따라 하기보다는 대한민국다운 학교체육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유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 최저학력제 때문에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에 가는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서 "임기 내 최저학력제를 포함해 운동선수들을 옹호하는 것들을 걷어내려고 한다. 이번 포럼에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택천 함께하는스포츠포럼 이사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배정된 체육 시수는 '교과 이기주의' 희생돼 학생의 체육 학습권 축소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적정한 체육 시수 확보와 초등 체육 과정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 선수 육성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라면서 "학생 선수가 운동에만 내몰리지 않으면서 운동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2025 학교체육진흥포럼

02

이어 조종현 용인고진중 수석교사가 '일반학생 체육활동 및 자율체육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재우 부산시교육청 장학사가 '학생선수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재우 장학사는 학생선수 정책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 ▲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 ▲ 최저학력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 방안 마련 ▲ 학생선수의 출석 인정 허용 일수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 ▲ 인권 친화적 방식의 학생선수 합숙소 정책 논의 등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주종미 호서대 사회체육과 교수는 김재우 장학사 발표와 관련해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도입됐음에도 역설적으로 진로와 경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주 교수는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에게만 학력 기준을 부과하고 기준 미달 시 경기 출전 금지라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가 과연 법령에서 규정할 사안인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육회는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학생선수 정책 개혁과제 로드맵을 만들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 ‘○○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줄게’ 2000만원 받은 야구부 감독 폭로하고 벌어진 일

한겨레21 장필수 기자

2025-12-19 15:23

사진=한겨레21(독자제공)

고교 야구부 감독의 각종 비위 혐의를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한 코치가 되레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며 사실상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을 강요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치의 폭로를 묵살한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감사와 고발을 계기로 야구부를 클럽으로 전환해 사실상 형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위 혐의가 싹튼 구조는 무시한 채 이를 드러낸 사람과 현장을 제거하는,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2025년 10월15일 화성시 비봉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전아무개씨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겨레21이 입수한 송치 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 감독은 케이비오(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받은 야구공을 지인에게 처분해 280만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를 놓고선 “2023년 3학년 학부모인 유아무개씨에게 ‘단국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감독 사기꾼 만드냐” 신고자 비난한 학부모들

경찰 수사는 비봉고 야구부 수석코치 김형남(가명)씨의 폭로로 촉발됐다. 김 코치가 2024년 10월7일 전 감독의 여러 비위 행위를 학교에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2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오산교육지원청)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오산교육지원청은 비봉고를 상대로 복무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아동학대 및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를 놓고선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2025년 2월 전 감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코치가 문제를 제기한 지 약 1년 만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그 1년 사이 김 코치는 “야구부를 시끄럽게 만든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집중 비난을 받았다. 김 코치가 공개 장소에서 감독의 비위 혐의를 제기했고 교육지원청마저 개입해 잡음이 일자 야구부 학생 6명이 전학을 갔고 팀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2024년 12월6일 김 코치의 재계약 철회와 전지훈련 참여 배제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 참석했던 학부모 ㄱ씨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당시 학부모들은 감독이 (코치를) 키워주려고 저렇게 노력했는데, 감독을 오히려 사기꾼으로 만든다고 받아들였다. 감독의 말만 듣고 김 코치를 빨리 이 학교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비난의 강도는 2025년 들어 더욱 거세졌다. 학부모회장 ㄴ씨는 2025년 3월 교내 야구장 울타리에 ‘야구부 와해시키는 김형남은 자진사퇴하라’라는 글이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다. ㄴ씨는 “당시에는 불필요한 민원을 다수 제기해 학생들이 전학 가는 등 팀이 와해됐다”며 “감독과 코치가 싸워 팀이 개판이 됐으니 누군가는 야구부를 나가야 정상화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ㄴ씨를 중심으로 뭉친 학부모들은 야구부 지도자들의 임금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상황을 거론하며 학교에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뒤 김 코치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는 2025년 3월 김 코치를 수석코치에서 일반코치로 강등시키며 연봉이 1200만원가량 삭감된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꼈”던 김 코치는 군말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 코치는 “열번이고 백번이고 그만두고 나가버릴까 생각했지만, 선수들과 팀을 생각했다. 나 혼자 살겠다고 포기하고 놓아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9월부터는 야구부를 해체하고 클럽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화성시체육회는 10월29일 “야구부는 화성시 고교야구의 상징적 존재”라며 클럽 전환 반대 의견을 냈으나,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구부를 클럽으로 전환하면 화성시체육회로부터 용품 및 대회 출전 지원(식비·숙박비 등) 명목으로 제공됐던 약 1억원을 받지 못하고, 공립인 비봉야구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비봉고는 부패 눈감고 선수 미래 나 몰라라

그런데도 학교는 클럽 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클럽 전환에 반대하면 전학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또 10월28일 야구부 지도자들에게는 ‘클럽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상당수 학부모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학교는 11월2일 ‘클럽 전환 반대’로 확정된 학부모 투표를 받아들고 나서야 클럽 전환을 잠정 중단했다.





정호철 비봉고 교감은 ‘김 코치의 근무 평가와 재계약 여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감은 “김 코치에게도 이를 정확하게 알렸다”고 말했다. 야구부의 클럽 전환 배경을 묻는 말에는 “학내 모든 이슈가 야구부에 매몰됐다. 일련의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학교 입장에서 ‘야구부의 늪’에 빠졌다는 생각을 한다”며 “상급 기관의 감사까지 받으면서 야구부의 기숙사 운영 등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을 더는 할 수 없다보니 클럽 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2026년 11월을 목표로 클럽으로 바꾸려 한다”고 설명했다.

### 야구부 감독 “받은 돈은 빌린 돈… 상환했다”

전 감독은 학부모와의 금전 거래는 인정하지만 결백을 주장한다. 그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야구공은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 학부모 유씨는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형이다. 4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며 “입금과 상환 내역 모두 존재해 경찰에도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에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야구부는 학부모의 돈으로만 운영돼요. 그러니 학교 입장에서는 ‘그건 너희들 싸움이야’라는 태도로 깊게 관여를 안 합니다. 밖에서 볼 때 비봉고 야구부 문제이지 학교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감독으로부터 한양대 진학을 대가로 “4천만원을 요구받았다”고 고백한 학부모 ㄴ씨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돌아봤다.





04

## '폐교→미래 학교체육의 메카'경기학생스포츠센터의 좋은 예, 개관 4년만에 '8809명' 방문자 폭증...'연구X연수X체험' 한국 체육교육 허브 됐다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2025.12.22. 11:28

사진=스포츠조선

미래 학교체육의 메카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2025년 한해 동안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미래 체육교육 혁신을 이끌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기흥중학교를 2021년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협력해 경기도 내 학생을 위한 스포츠시설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디지털 농구대, 센서 기반 풋살장, 스마트 장비 결합의 헬스시설, 최신식 교구 및 시설을 갖추고 전문 연구원 5명 이상이 상주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연구, 연수, 체험을 세 축으로 자율, 균형, 미래의 가치를 실현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은 학교 체육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들의 오감을 사로잡는 스마트한 하드웨어는 물론 콘텐츠, 프로그램, 교육 공동체 측면에서도 타 시도의 모범이 될 만한 혁신적인 시도다.

### ▶학생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 방문객 폭증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매년 방문객이 급증하며 그 필요성과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학생, 교직원을 포함해 총 8809명이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찾았다. 2024년(7269명) 대비 15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개관 첫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600명에 머물렀던 데 비하면 4년 만의 최다인원, 폭발적 성장세다.

2025년 체험 영역에선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중심으로 디지털 및 신체활동 중심의 다양한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건강체력 향상형 체험을 통해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내 모든 체험실을 활용한 학급별 체험이 이뤄졌으며, 센서 기반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풋살, 운동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며 미니카 경주를 하는 바이크 레이싱 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지역 맞춤형 팀 프로젝트는 용인형 공유학교와 연계해 협동, 도전, 나눔 중심의 콘텐츠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 스마트 스포츠 활동 등이 진행됐다.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학생, 학부모, 가족, 교사 등 교육 공동체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답사 및 탐방 안내, 연수활동, 이벤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됐다.

### ▶ '미래 체육 방향 제시' 전문성 높은 연수 프로그램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교사들의 체육수업 전문성과 학생 실기지도 역량을 강화에도 집중했다. 초중등 교원 실기 연수와 스마트체육 교원 연수가 활발히 진행돼 현장 교사들의 신청 열기가 뜨거웠다. 진로 교육 분야에선 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 설명회를 개최,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도왔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미래 학교 체육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우천, 폭염,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 요인의 제약 없는 실내 운동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디지털에 익숙한 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체육활동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특히 시·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체육활동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미래 체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 2026년 스포츠·예술 융합과 학생 주도형 체험 프로그램 지원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2026년 새해에도 학생주도의 체육활동이 일상에 스며들어 경험의 깊이를 더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와 연계한 1일형 스포츠·예술 융합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및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직접 스포츠 행사를 기획·운영·홍보하는 학생주도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지역과 학교를 잇는 개방과 공유의 스포츠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학생주도 일상화를 지원하는 융복합 체육의 중심 공간이 되겠다. 2026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근육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23일 국회서 공청회 개최

무예신문 최현석 기자

2025/12/17 11:48

사진=무예신문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둘러싼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조계원 의원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에 참여한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져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의무 위탁하는 제도를 통해 공정성은 일정 부분 확보됐지만, 선거인 수가 제한돼 있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1년과 2025년 두 차례 회장 선거를 거치며 변화한 체육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졌다.

대한체육회는 제42대 회장 선거 이후인 지난 3월, 선거 분야와 법조계, 체육학계 전문가, 체육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동시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대표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계원 의원은 선거인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역시 제도 개선 논의에 공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청회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와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행정기관,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에는 등록 경기인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도입을 비롯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모바일 투표 도입, 후보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선거 참여를 넓히는 동시에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관계자와 선수, 지도자, 동호인은 물론 일반 시민도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